『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16
pp.265-283 ISSN : 1229-9618

한중 무역변화에 대한 한중 FTA 발효효과 분석
— 전자기기산업을 중심으로

이종찬* · 윤관진** · 채상수***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한중 FTA 발효효과 분석
   1) 한중 FTA 발효이후 전자기기분야 수출입 변화 및 추세분석
   2) 한중 FTA 발효이후 전자기기분야 수출입 변화 실증분석
4. 분석결과
5. 요약 및 결론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있는 HS코드 8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무역액 증감과 추세분석 결과 즉시철폐 품목 중 상당수가 한중FTA 발효이후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 역시 상당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즉시철폐 품목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는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관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 한중무역, 한중 FTA, 즉시철폐, 한중 FTA 발효, 한중 FTA 효과

* 제1저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촉탁강사 (ljc0306@korea.ac.kr)
** 공동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통계학과 석사과정 (s2power09s2@naver.com)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통계학과 박사과정 (ssoochae@korea.ac.kr)

1. 서론

2012년 FTA관련 협상을 개시한 한중 양국은 2014년에 실질적 합의를 이루었고 2015년에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2015년 한국은 국회의 비준동의안을, 중국은 국무원 승인 등의 비준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되었다.

한중 FTA의 발효로 한국은 무역증대효과와 경제성장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의 효과로서 중국의 약 10조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을 선점하여 무역증대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통하여 약 10년간 0.96%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하였다.[1] 한국정부의 기대처럼 한중 FTA는 한중양국의 무역에 더욱 활력을 주어 양국무역을 증대시키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한국에 그리고 고도성장 단계를 벗어나 '신창타이'의 단계로 접어든 중국에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는 최장 20년 이내에 품목수 90%, 수입액 85%의 시장자유화율을 목표로 관세를 철폐 또는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품목수 기준 중국 측은 91%, 약 7,248개의 품목에 대한 협의를 이루었고 한국 측은 92%, 약 11,272개 품목에 대해 협의를 이루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 측은 한국에서의 수입액의 85%, 약 1,417억 달러에 대한 수입관세를, 한국 측은 중국에서의 수입액의 91%, 약 736억 달러의 수입액에 대한 관세를 관세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한중 FTA는 발효되었다.

즉시철폐는 한국 측 양허의 경우 6,108품목(약 49.9%), 대 중국수입액 약 41,853백만 달러로 발효되었다. 그 중 무관세로 발효된 것은 1,983품목(약 16.2%), 대 중국수입액 33,811백만 달러이며 유관세로 발효된 것은 4,125품목(약 33.7%), 대 중국수입액 8,042백만 달러로 협의되었다. 중국 측 양허는 1,649품목(20.1%), 대 한국수입액 73,372백만 달러로 협의되었다. 그 중 무관세는 691품목(8.4%), 대 한국수입액 64,658백만 달러이며 유관세는 958품목(11.7%), 대 한국수입액 약 8,714백만 달러로 협의되었다. 5년 내, 10년 내 축소와 더욱 장기간에 걸친 협의는 다음과 같다.[2]

<표1> 한중 FTA의 장기간 발효 품목

양허유형		한국 측 양허(품목 수)	중국 측 양허(품목 수)
5년 철폐		1,433	1,679
10년 철폐	선형철폐	1,971	1,856
	9년차 감축	LCD패널(TV용/기타)	LCD패널
15년 철폐	선형철폐	678	875
	11년차 감축	없음	액정디바이스 부품
20년 철폐		34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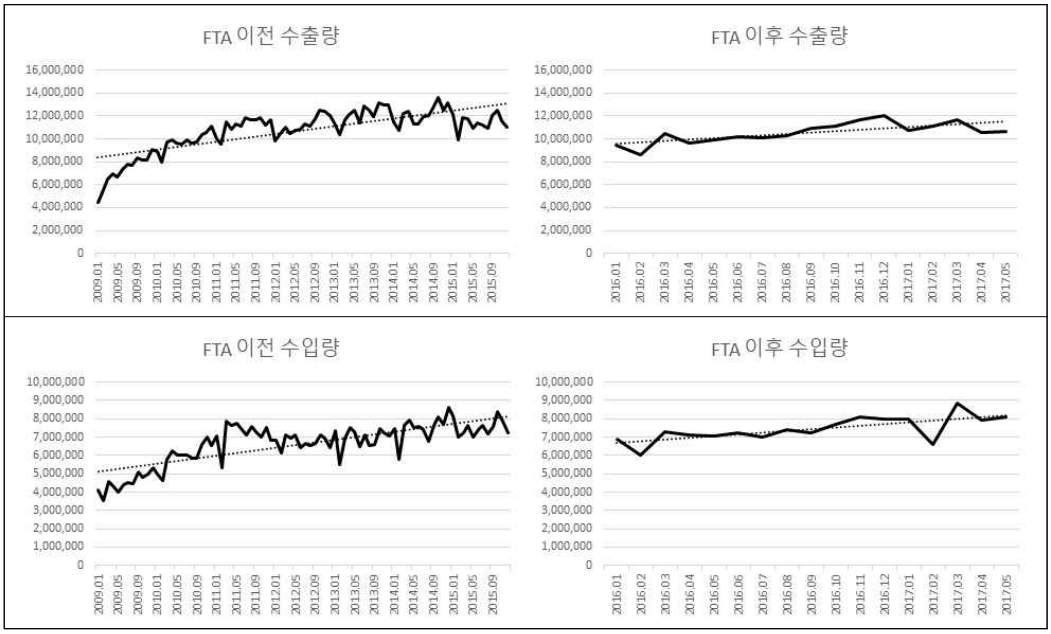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중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중 한중 FTA 설명자료 참고

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
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되었을 때부터 즉시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띄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그 목표로 한다. 즉시철폐 품목 중 일반적으로 한국에 경쟁력이 있다고 회자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이후 즉시철폐 품목의 무역액 변화와 그 변화가 전자기기와 그 부품들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여, 한중 FTA발효가 대 중국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유추해 보고자 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중 양국의 무역총액의 변화와 그 추세변화는 다음과 같다.

<그림1> 2008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액과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위의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 이후 한중무역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양국의 높은 기대와 달리 FTA발효 이후 오히려 양국무역 감소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중무역의 변화 속에서 한중 FTA가 한중무역성장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즉시철폐분야의 무역변화가 한중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중 FTA가 발효된 것은 2015년 12월로 아직 발효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다는 것이 한계성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효성에 상세한 지표나 인과성 등은 분석해 못할 것이며 단순히 효과의 검증만을 그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중 FTA의 실질적인 협상과정과 발효시기에 한중 양국의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한중 FTA의 발효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 우선 즉시철폐 품목

에 대한 실증분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되어야할 한중 FTA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의 시계열적 관측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한중 FTA의 발효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며 향후 본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며 1장 서론, 2장 선행연구, 3장 한중 FTA발효효과 분석 그리고 4장 분석결과, 그리고 5장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3장은 2개의 절로 나뉘어 1절 한중 FTA 발효이후 집적회로분야 수출입 분석에서는 집적회로 분야의 수출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중 FTA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그 변화와 추세를 분석하고, 2절 한중 FTA 발효이후 집적회로분야 수출입 변화 실증분석에서는 OLS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집적회로 중 즉시철폐분야의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당 품목이 집적회로 산업의 한중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4장 분석결과에서는 1절과 2절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의 효과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맺는다.

2. 선행연구

본연구의 연구대상은 2015년 한중 FTA의 발효이후 한중 FTA의 발효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중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한국 측 연구와 중국 측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한국 측의 연구는 한중 FTA의 발효가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와 한중무역의 창출효과 등을 예측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반면 중국 측의 연구는 한중 FTA가 중국 개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위주로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측의 연구로서 박재진(2003)은 중력식을 이용하여 한·중·일 수출무역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역에 참여하는 교역당사국들의 소득관련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자국시장효과와 상대국시장효과)였다. 추정결과 한국과 중국에서는 자국시장효과가 작용하고 일본에서는 역의 자국시장효과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최환 외1명(2004)의 실물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금융부문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CGE 모형을 이용하여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실물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관세철폐는 총수출입은 증가시킨 반면,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

3) 박재진,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수출패턴 분석」, 『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pp.51-80.

4) 최환 외 1명,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CGE 모형과 FCGE 모형을 이용한 비교 분석」, 『국제경

강다연 외1명(2014)의 연구는 한국의 FTA발효로 나타난 교역증진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현재 협상 및 협상준비국과 FTA발효 이후 교역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ID추정을 통한 FTA발효효과변수의 계수 값이 유의적인 양의 계수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한국과의 FTA체결을 준비 중인 국가들과 FTA발효 이후의 교역증진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5)]

남수중 외1명(2016)의 연구는 충남지역 제조업의 대중 수출입 구조를 분석하였고, 한중 FTA발효가 충남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 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고, 상위 20개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4년 기준 무역수지 흑자의 7.5% 증가, 2013년 기준 충남 GRDP가 약 2.6% 성장할 것으로 나타났다.[6)] 이순철(2016)은 2003~2013년 10년의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 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많이 체결되는 FTA가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제시하였다.[7)]

강준구 외2명(2017)의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 관련 연구,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영향 파악, 무역전환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에 WIOD가 제시한 WIOT를 활용하여 한중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서비스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창출, 전환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8)]

중국 측의 한중 FTA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姜宪九(2008)의 연구는 발전해 가는 한중관계와 이에 따른 한중 FTA의 체결전망과 양국정부의 경제협력에 따른 한중 FTA의 양국경제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중 FTA체결 전 한중 FTA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9)]

魏一豪, 吴国蔚(2010)의 연구 역시 한중양국무역과 경제협력의 결합체로서 한중 FTA를 평가하고 있으며 한중 FTA체결에 따른 양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OLS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의 GDP와 양국 무역액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 추정계수를 통하여 양국 무역의 증가가 한중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를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10)]

王文晓, 郑雅洁(2010)의 연구는 한중 FTA체결이 중국 농산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G

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pp.1-37.

5) 강다연 외 1명,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4, pp.89-119.

6) 남수중 외 1명,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충남지역 제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現代中國硏究』, 제18권 제1호, 현대중국학회, 2016, pp.76-119.

7) 이순철, 「공간모형을 통한 FTA의 다각화가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국제지역학회, 2016, pp.53-78.

8) 강준구 외 2명, 「한중 FTA 상품협정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7, pp.1-34.

9) 姜憲九, 「中韓建立FTA的可行性與經濟效應分析」, 『北方經貿』, 第2期, 2008, pp.44-47.

10) 魏一豪, 吳國蔚 「中韓FTA 貿易效應研究」, 『價格月刊』, 第397期, 2010.06, pp.37-39.

TAP[1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 FTA에 농산물이 포함된다면 한국 농산물시장에 많은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한국이 농산품 시장을 민감품목으로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 분석하였다.[12]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 이외 국가에서의 FTA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EU, 한-아세안, 한-중-일 FTA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Fritz Breuss 외1명, (2011)의 연구는 한-EU FTA는 EU가 협상한 가장 포괄적인 자유 무역 협정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2007년 기준으로 GTAP8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계산 가능한 CGE 모델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무역 장벽의 개방은 파트너와의 무역 창출과 EU 내 옛 거래 파트너와의 거래 전환을 모두 가져온다고 분석하였으며, OECD 국가들의 FTA는 다른 개발 도상국가들과의 체결보다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론 내렸다.[13]

Hikari Ishido 외1명(2012)의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의 아세안과의 FTA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ASEAN+1과의 FTA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ASEAN+1과의 FTAs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해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ASEAN과 FTA 파트너가 기존의 무역 협정에 진정으로 실질적인 협정을 추가하려면 ASEAN+1 국가는 높은 자유화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ASEAN+1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무역 제한을 좁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4]

OH. Jeong-Soo 외1명(2013)의 연구는 한·아세안 자유 무역 협정(AKFTA)이 라오스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GTAP모델을 사용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라오스가 AKFTA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될 것들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 라오스의 실질 GDP와 복지는 증가하는 반면 무역 적자는 증가 할 것이며 일부 부문의 생산은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숙련 노동자의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AKFTA는 라오스의 성장을 도모하고 수입 분배를 향상시킬 것으로 나타났다.[15]

Srinivasa Madhur(2013)의 연구는 한-중-일 3국의 FTA를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중국-한국-일본의 자유무역협정(CJK FTA)이 세 동북아 국가에게 큰 이득을 만들어주고 국제 다자간 무역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몇몇 장애물들이 CJK FTA 혹은 양자간 무역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양국 간 FTA 체결을 앞당기고, CJK FTA협상이 계속 이어지도록 이중 트랙 접근 방식을 실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중 어느 것도 GCEP 혹은 Tpp.와 같은 큰 다자간

---

11)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는 국제경제정책문제, 무역정책의 정량분석을 위한 연구네트워크이다. 이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한다. 이 DB에는 양자 간 무역패턴, 생산, 소비 및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제품생산 기술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2) 王文曉·鄭雅潔, 「中韓FTA 建立對農産品貿易的影響—基于GTAP模型的研究」, 『廣西財經學院學報』, 第26卷 第2期, 2013.04, pp.74-79.

13) Fritz Breuss 외 1명, "EU-South Korea FTA-Economic Impact for the EU and Austria", *FIW Policy Brief*, 2011, pp.1-9.

14) Hikari Ishido 외 1명,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 Toward a Harmonized ASEAN+1 FTA", *ERIA Policy Brief*, 2012, pp.1-8.

15) OH. Jeong-Soo 외 1명, "Impact of ASEAN-Korea FTA on Poverty: The Case Study of Laos",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8, 2013, pp.114-119.

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16)]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FTA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중 FTA가 한국 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그리고 산업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예측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연구와 중국의 연구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타 국가의 연구에서는 한중 FTA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또는 유럽과 한국의 FTA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등 대규모 경제블럭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구 역시 FTA체결이후 쌍방의 FTA에 대한 실증분석보다는 FTA를 체결해야 하는 당위성에 의의를 가지고 FTA체결에 대해 지지하는 연구가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했던 것과 같이 본 연구는 한중 FTA발효 이후 분석기간이 짧다는 한계점은 가지고 있으나 한중 FTA발효이후 한중 FTA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한중 FTA실증분석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중 FTA 발효효과 분석

1) 한중 FTA 발효이후 전자기기분야 수출입 변화 및 추세분석

본 절에서는 최근 한국무역에서 가장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집적회로 분야에서 한중무역이 한중 FTA를 전후하여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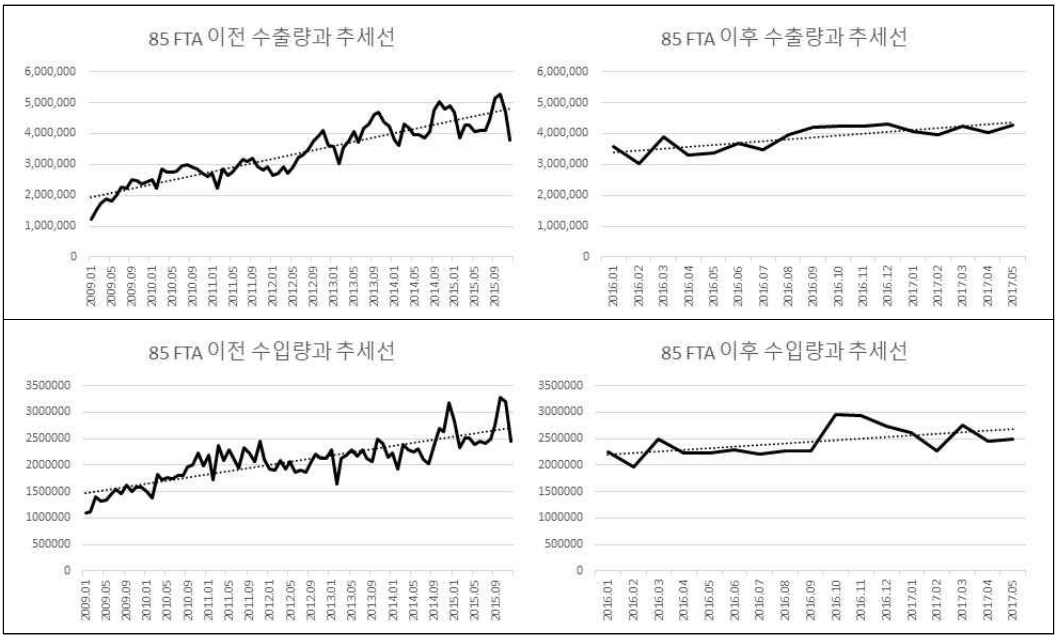
우선 한중 FTA 양허안에 있어서 집적회로 분야는 양국의 양허안 모두에 즉시철폐로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산업에 있어 가장 높은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지원은 점차 강화될 추세이다. 따라서 집적회로는 한중 FTA 발효이후 그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한중 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는 HS코드 2단위 분류로서 HS코드 85(전기기기와 그 부품들)의 대 중국 수출입 변화와 그 추세선을 한중 FTA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HS코드 85의 분류는 집적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분류코드이다. 또한 분석기간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세계무역에의 충격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 5월까지를 그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림3을 통하면 한중 FTA 이후 한중 무역액의 추세선의 기울기 변화가 확연히 나타난다. HS코드 85의 경우 즉시철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적회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이후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다. 즉 한중 FTA발효 이후 HS코드

16) Srinivasa Madhur, “China-Japan-Korea FTA : A Dual Track App.roach to a Trilateral Agreement”, *JEI*, 제28권 제3호, 2013, pp.375-392.

85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5년 이후 한중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한중 양국의 국가관계 악화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양국의 국가관계 변화가 FTA 발효로 나타난 관세변화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즉시철폐분야 HS코드 2단위 수출입 변화 및 추세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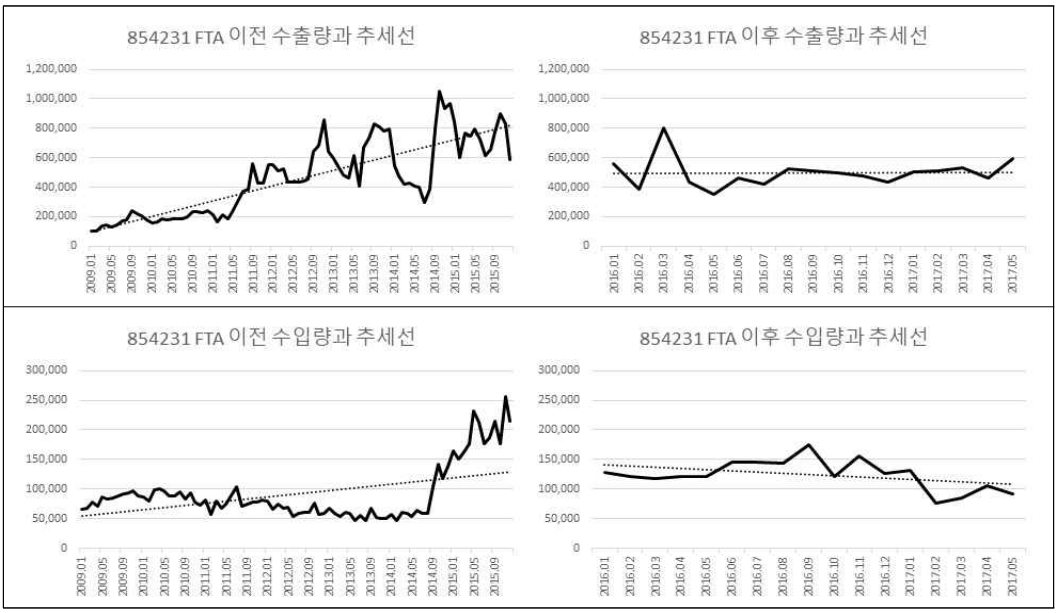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그림3>은 HS코드 6단위 분류로서 HS코드 854231(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 또는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대 중국 수출입 변화와 그 추세선을 표시한 것이다. HS코드 854231의 경우 한중 양국의 양허안에 모두 즉시철폐로 협의된 품목이다. 그림 4에 의하면 한중 FTA발효 이후 수출의 경우 그 추세선의 기울기 변화가 감소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FTA발효 이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추세선이 FTA발효 이후 오히려 그 추세선의 기울기가 (-)의 형태를 나타내며 급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4>는 HS코드 6단위 분류로서 HS코드 854232(메모리)의 수출입 변화와 그 추세선을 표시한 것이다. HS코드 854232(메모리)는 수출의 경우 미약하지만 한중 FTA 발효 이후 추세선의 기울기가 (+)의 방향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중 FTA발효 이후 수출액의 증가추세가 여전히 유지되었고, 관세철폐의 영향을 받아 그 수출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수입 역시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추세선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유사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양국의 양허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기기 전체와 한중 무역전체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S코드 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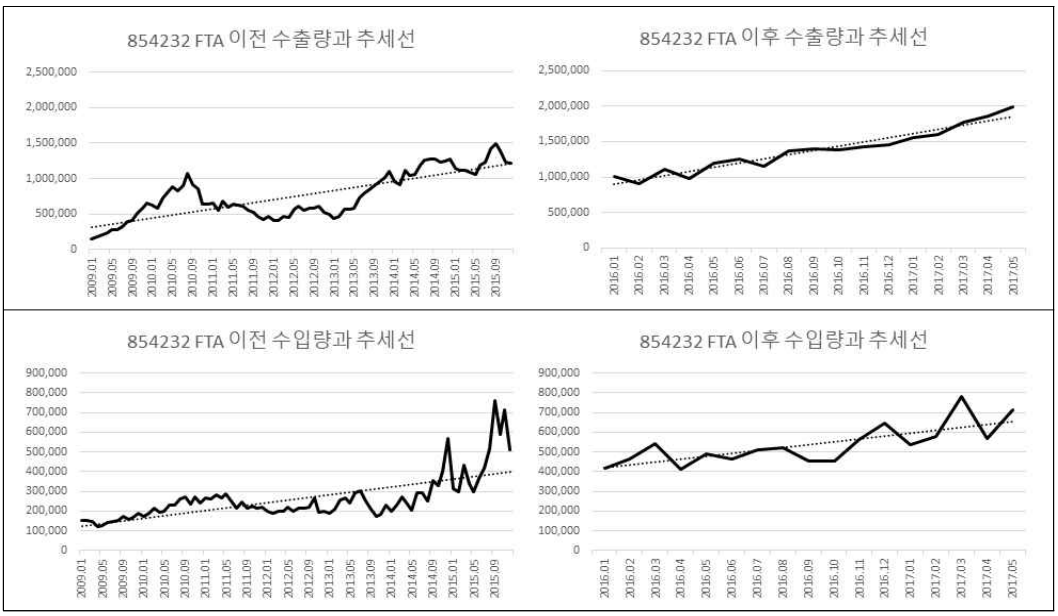
232의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중 양국의 HS코드 854232에 대한 산업내 무역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양국의 HS코드 854232 관련 산업 분야는 매우 활발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3> 즉시철폐 HS코드 854231 수출입 변화와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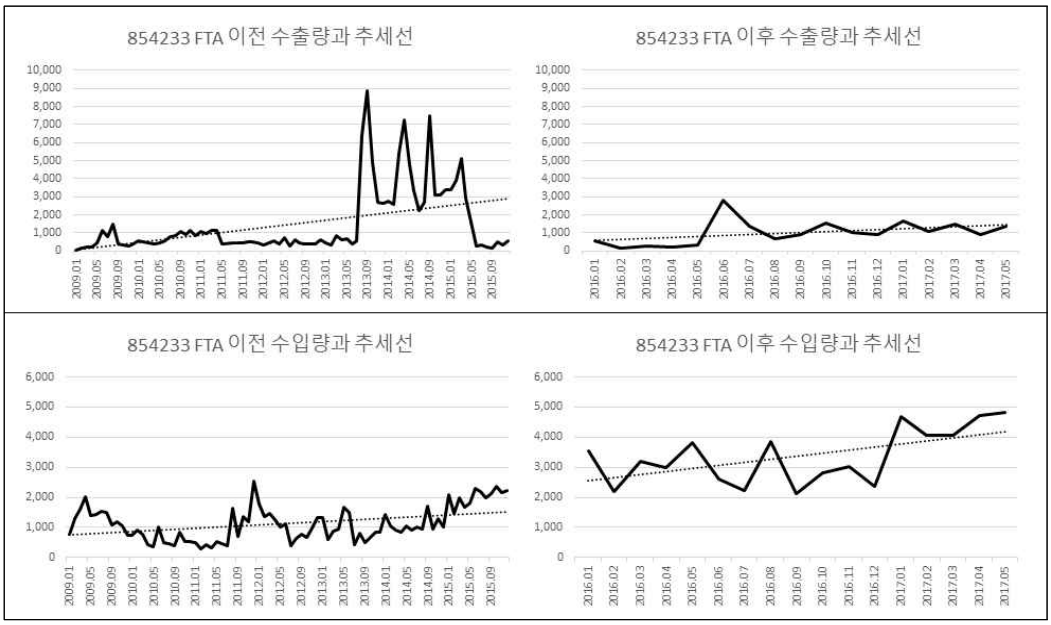
<그림4> 즉시철폐 HS코드 854232 수출입 변화와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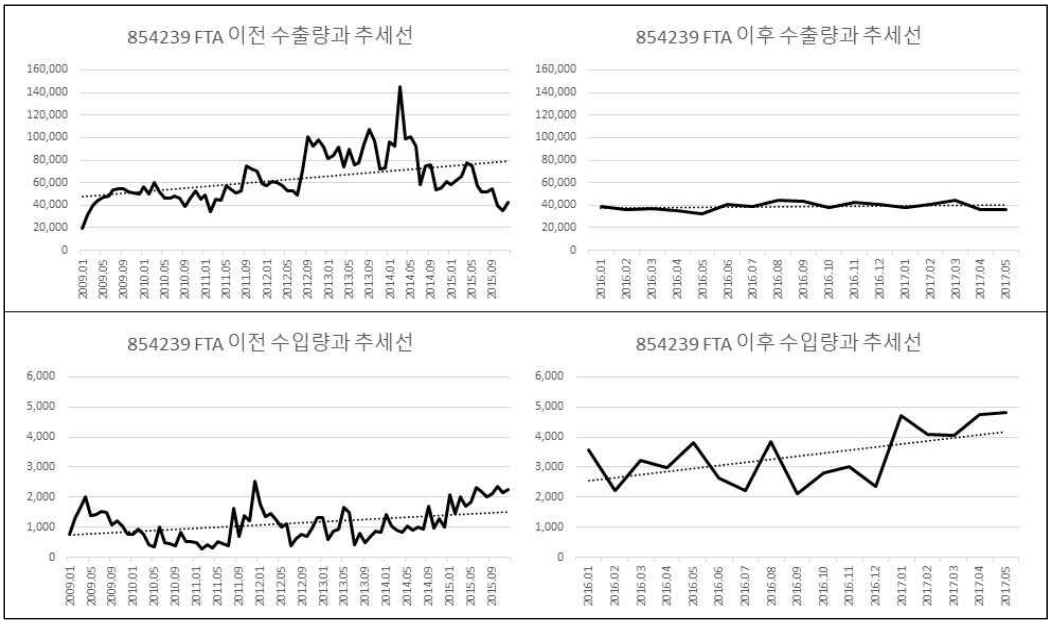
<그림5>와 <그림6>은 HS코드 854233(증폭기)과 HS코드 854239(기타)의 대 중국 수출입 변화와 그 추세를 각각 표시한 것이다.

<그림5> 즉시철폐 HS코드 854233 수출입 변화와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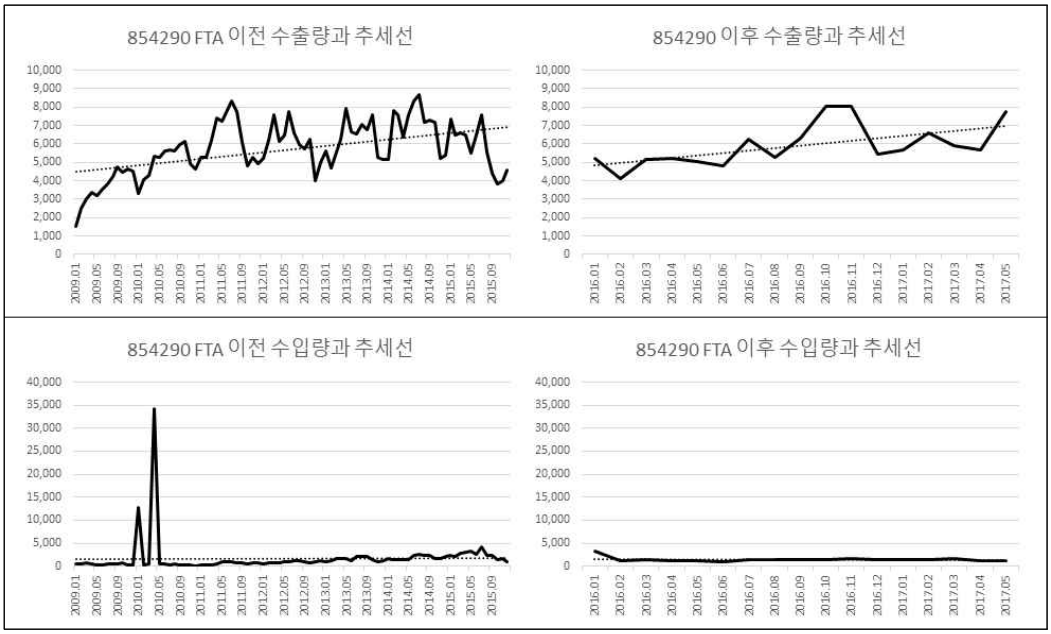
<그림6> 즉시철폐 HS코드 854239 수출입 변화와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그림5>와 <그림6>의 HS코드 854233(증폭기)과 HS코드 854239(기타)의 수출입변화는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중 FTA의 발효 이전에 비해 발효이후에 수출은 감소추세, 수입은 증가추세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7> 즉시철폐 HS코드 854290 수출입 변화와 추세 (단위: 천 달러)



자료출처: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에서 재구성

<그림7>은 HS코드 854290(부분품)의 대 중국 수출입변화와 그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HS코드 854290의 경우 한국의 수입은 2010년 초의 특이점을 제외하면 그 수입량이 매우 적어 큰 변화나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의 경우 미약하지만 한중 FTA의 발효 이후 그 추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HS코드 854290 역시 FTA의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량이 감소한 것이다.

2) 한중 FTA 발효이후 집적회로분야 수출입 변화 실증분석

본 연구는 한중 FTA발효 이전과 이후의 한중 양국의 무역변화의 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발효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의 양허안에 모두 포함되어 한중 FTA의 발효 즉시 양국의 산업에 관세철폐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HS코드 85의 세부 품목을 통해서 양국의 무역 변화와 추세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양국무역의 세부품목의 변화가 양국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급감했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17]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위의 추세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HS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한중 FTA 양허안이 HS코드분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품목별 무역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HS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HS코드는 2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화되는데 본 연구는 6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양허안의 경우 HS코드 10단위, 중국의 양허안의 경우 HS코드 8단위로 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실제 무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품목이 존재하고, 무역량이 너무 미약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양국무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할 경우 중력모형이나 부분균형분석 모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력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자간 무역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일반적인 중력 모형은 다음의 식(1)과 같다.

$$TR_{ij} = A\frac{Y_i Y_j}{D_{ij}} \tag{1}$$

이때 TR_{ij}는 양국의 무역규모를 의미하고, Y_i와 Y_j는 양국의 경제규모로서 일반적으로 양국의 GDP를 이용한다. 그리고 D_{ij}는 양국의 거리를 의미하며 무역에 필요한 무역비용을 의미한다.[18] 그러나 중력 모형의 경우 Y_i와 Y_j와 같이 양국의 GDP가 경제규모로서 반드시 필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GDP를 실증분석에 활용할 경우 그 관측치가 너무 적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부분균형분석 모형의 경우는 수출, 수입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수출함수와 수입함수를 추정하게 된다.[19] 이때 수출함수와 수입함수에 교역상대국과 한국의 소득규모로서 GDP로 표현되는 변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역시 중력모형과 마찬가지로 관측치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를 관세철폐 및 축소로 인한 가격변화의 제도의 혁신으로 보고 제도의 혁신에 따르는 양국의 무역변화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20]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발효로 인한 관세의 변동을 하나의 제도적 변화로 상정하고 한중 FTA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전후의 더미변화를 추정함으로서 한중 FTA의 한중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추정모형은 다음과 같다.

---

17)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18) 이순철, 「공간모형을 통한 FTA의 다각화가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국제지역학회, 2016, p.60 참조

19) 남수중 외 1명,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충남지역 제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現代中國硏究』, 제18권 제1호, 현대중국학회, 2016, p.95 참조

20)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이 일어나면 뒤이은 혁신이 발생하여 혁신의 군집으로 인하여 경기의 상승이 유발된다. 또한 대규모의 혁신은 정부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Y = lex31 + lex32 + lex33 + lex39 + lex90 + dummy \quad (2)$$

$$Y = lim31 + lim32 + lim33 + lim39 + lim90 + dummy \quad (3)$$

위의 식(2)는 한중 FTA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Y는 HS코드 85의 수출액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각각의 lex변수는 HS코드 854231, 854232, 854233, 854239, 854290의 수출액에 로그를 취한 값이다. 그리고 dummy는 한중 FTA기간에 대한 변수로 FTA발효 이전을 0, 발효 이후를 1로 추정하여 그 계수가 FTA발효가 HS코드 85의 수출액에 미친 영향을 표현하게 된다. 식 (3)의 구조 역시 식 (2)의 변수와 동일하며, 다만 Y는 HS코드 85의 수출액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lim의 변수는 각각 품목의 수입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사실 통계적으로 의미부여가 불가능하다. 앞서 본 연구의 한계에서도 서술하였듯이 FTA발효 이후부터 분석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필요한 실증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세분석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로서 회귀분석을 첨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표2> 회귀분석 결과

수출

	model_1
	coef/se
lex31	0.240***
	(0.014)
lex32	0.290***
	(0.019)
lex33	-0.001
	(0.008)
lex39	0.129***
	(0.027)
lex90	0.016
	(0.028)
dummy	-0.022
	(0.021)
_cons	6.462***
	(0.291)
Number of observations	101
R2	0.961
note: *** p<0.01, ** p<0.05, * p<0.1	

수입

	model_1
	coef/se
lim31	-0.083**
	(0.036)
lim32	0.375***
	(0.047)
lim33	0.026
	(0.024)
lim39	0.282***
	(0.055)
lim90	0.017
	(0.015)
dummy	-0.191***
	(0.046)
_cons	7.478***
	(0.528)
Number of observations	101
R2	0.747
note: *** p<0.01, ** p<0.05, * p<0.1	

분석결과 수출의 경우 한중 FTA발효는 HS코드 85(전기기기와 그 부품들)의 수출에 0.022%로 (-)의 효과를 주었고, 수입에 0.191%수준으로 (-)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즉시철폐품목인 제품들은 대부분 수출과 수입에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HS코드 854231(프로세서와 콘트롤러)은 HS코드 85의 수출에 0.24로 (+)의 효과를 주었고 수입에 0.083

으로 (-)의 효과를 주었으며, HS코드 854233(증폭기)의 품목만 즉시철폐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코드 85의 수출에 0.001수준으로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즉시철폐 품목인 HS코드 854232(메모리), HS코드 854239(기타), HS코드 854290(부분품)은 모두 한중FTA의 발효로 그 수출과 수입에 (+)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결과

한중 양국의 FTA 양허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분야이며, 즉시철폐분야인 전자기기의 무역변화를 통하여 한중FTA의 발효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분석방법에 따라 상충된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무역액 증감과 그 추세분석의 결과는 한중 FTA의 즉시철폐 품목들 중 HS코드 854232의 메모리를 제외하고는 한중FTA 발효이후 모두 대 중국수출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HS코드 854233(증폭기)와 854239(기타)의 품목은 수출은 감소세이나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에서는 HS코드 854233(증폭기)만이 대 중국수출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HS코드 854231(프로세서와 콘트롤러)의 품목만이 대 중국수입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중FTA의 발효를 기점으로 분석한 더미변수 역시 수출과 수입에 모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현상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의 무역에 있어 FTA로 대표되는 관세를 통한 무역정책 외의 다른 변수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회귀분석결과는 한중 FTA의 즉시철폐분야에 대한 영향이 한중무역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반면 무역액을 통한 추세분석은 한중 FTA발효 이후 그 추세가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서 관세 이외의 변수들이 FTA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서의 더미변수 역시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위의 주장에 더 큰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은 HS코드 85의 전자기기관련 품목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중 무역 전체의 무역액과 추세분석의 결과와 HS코드 85의 분석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HS코드 85의 모형을 통해서 한중무역의 변화추세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한중무역에서는 관세철폐의 영향을 관세이외의 변수가 상쇄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신창타이'시대 진입 이후 중국경제성장률 둔화가 한중무역의 약세를 이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초 중국의 증시폭락이 발생했다. 이때 많은 언론에서 중국 발 금융위기의 발생을 우려했지만 증시폭락 자체가 중국의 경제성장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이는 중국의 실물경제분야가 중국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보다는 간접금융시장이 발전한 중국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이다.[21] 중국은 증시폭락의 영향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21) 이종찬 외 2명, 「동태적 조건부상관관계를 통한 중국의 주식시장과 거시변수간 관계 추정」, 『Journal

지속적인 성장률의 감소로 2016년 목표성장률을 6.5%대로 산정했고 실제 성장률을 6.7%로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공급측면 개혁의 결과로 보인다.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던 중국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공업 등 대규모 공장의 신축을 제한하고 기존의 제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 개혁에 의한 영향인 것이다.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경제의 특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한중무역 감소에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중양국관계의 악화가 한중무역 감소추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한중 양국의 국가관계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한중 FTA발효뿐만 아니라 AIIB가입, 중국의 전승절 참석 등 한중수교 이후 가장 우호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2016년 한중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사드배치, 삼성과 화웨이의 미국과 중국에서의 소송과 재판,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중국의 대응, 지속적인 어업분쟁으로 이어진 한국해경의 공용화기 사용 등 2015년과 비교하면 한중관계는 매우 빠르게 냉각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중국경제의 경우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한중무역의 감소가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 보조금 지원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가진 중국시장의 특징이 한중무역을 감소 추세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1년 WTO가입이후 시장개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BRF(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도 자유무역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 정책이 상당수 존재하는 국가이다.

<표3>국가 및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

구분	북미	EU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ASEAN
수입규제	3	0	1	7	6	4	4
통관	5	3	2	8	5	8	7
무역규제	1	1	1	1	0	2	2
정부조달	4	1	1	3	2	6	7
기술장벽	4	5	9	8	5	7	6
지식재산권	1	0	0	3	3	1	3
경쟁	1	0	0	1	2	2	1
계	19	10	14	31	23	30	30

자료출처: 김영귀,「한중FTA의 거시경제적 효과」,KIEP 연구보고,2016.
주: 외교통상부(2006), USTR(2007)과 기타「국별 통상장벽 보고서」등에서 정리한 것을 인용

위의 표는 한국의 주요무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빈도수를 정리한 것이다. 위의 표에 의하면 다른 경제권역이나 국가에 비해서 많은 비관세장벽의 빈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보호무역정책이 한중 무역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8권 3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06. pp.1441-1449 참조

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현재 집적회로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소득세(한국의 경우 법인세)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4>중국의 집적회로 설계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혜택

기업 소득세	● 폭이 0.8㎛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한다. •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 기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된다.
	● 폭이 0.25㎛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 혹은 투자액 80억 위안 이상인 제조기업은 인정획득 후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음. 그 중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인 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한다. • 첫 1~5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6~10년 동안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된다.
	● 신규 설립된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인정 획득 후 2017년 12월 31일 이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함.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	● 기업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정산하며 감가상각기한은 최대 2년까지 축소 가능하다.
	● 집적회로 제조기업의 생산설비는 고정자산 감가상각기한이 최대 3년까지 축소 가능하다.

자료출처: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kotra 국가정보 – 중국, 에서 정리
주: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鼓 励软件产业 和集成电路产业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2]27号)

위의 표와 같이 해당 산업의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제혜택 및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혜택은 중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해당산업의 한국기업에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상기의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한중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중무역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의 변화와 추세변화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관세의 즉시철폐 품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HS코드 85의 전자기기 및 부품들이라는 산업분야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중 무역의 추세변화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던 반면 회귀분석을 통한 관세 즉시

철폐품목은 FTA발효 이후 한중무역에 증가효과로 나타나는 상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철폐로 얻어지는 무역증가의 효과를 관세이외의 변수들이 상쇄시켰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관세이외의 변수로서 첫째, 중국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둔화 둘째, 한중양국의 국가관계 악화 셋째, 중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한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요소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국가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양국관계의 악화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만큼 경제적 협력분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정치적 관계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FTA발효 이후에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실무자를 통한 그리고 민간의 노력을 통한 관계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한중무역 악화의 또 다른 요소로 판단되는 비관세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관계개선과 병행하여 비관세 무역장벽을 우회할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본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또는 자국제품 우선사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호무역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해외개방 강화와는 상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버스의 전기자동차 도입에 있어 한국의 우수한 전기자동차용 전지를 배제하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전지를 채택한다던지, 의료기기나 화장품 등의 산업의 수입조건에 있어 위생상의 허가 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중 FTA의 관세철폐 또는 축소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 중국수출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중무역은 그 무역구조에서 산업내 무역이 강화되고 있다.[22] 따라서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만으로는 한중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 중국수출시장에 있어 기존의 수출품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중국제조 2025>, 생산 분야의 개혁 등의 정책을 내세워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유지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국시장 개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분석기간이 짧아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보완연구과제로 남긴다. 그러나 현재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한중 FTA의 효과가 나타나야할 시점에 한중무역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

22) 이종찬 외 1명, 「GL지수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효과분석」, 『중국학, 』제57집, 대한중국학회, 2016.12, pp.355-377 참조

【참고문헌】

강다연 외 1명, 「FTA가 한국 교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14.

강준구 외 2명, 「한중 FTA 상품협정이 서비스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17.

남수중 외 1명,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충남지역 제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現代中國硏究』, 제18권 제1호, 현대중국학회, 2016.

박재진,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중·일 수출패턴 분석」, 『경제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이순철, 「공간모형을 통한 FTA의 다각화가 양자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0권 1호, 국제지역학회, 2016.

이종찬 외 2명, 「동태적 조건부상관관계를 통한 중국의 주식시장과 거시변수간 관계 추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8권 3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06.

이종찬 외 1명, 「GL지수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효과분석」, 『중국학』, 제57집, 대한중국학회, 2016.12.

최환 외 1명,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CGE 모형과 FCGE 모형을 이용한 비교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姜憲九, 「中韓建立FTA的可行性與經濟效應分析」, 『北方經貿』第2期, 2008.

魏一豪,·吳國蔚 「中韓FTA 貿易效應硏究」, 『價格月刊』總第397期, 2010.06.

王文曉·鄭雅潔 「中韓FTA 建立對農産品貿易的影響—基于GTAP模型的硏究」, 『廣西財經學院學報』, 第26卷 第2期, 2013.04.

Fritz Breuss 외 1명, “EU-South Korea FTA-Economic Impact for the EU and Austria”, *FIW Policy Brief*, 2011.

Hikari Ishido 외 1명,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Toward a Harmonized ASEAN+1 FTA”, *ERIA Policy Brief*, 2012.

OH. Jeong-Soo 외 1명, “Impact of ASEAN-Korea FTA on Poverty: The Case Study of Laos”,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8, 2013.

Srinivasa Madhur, “China-Japan-Korea FTA : A Dual Track App.roach to a Trilateral Agreement”, *JEI*, 제28권 제3호, 2013.

김영귀, 「한중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KIEP 연구보고, 2016.

산업통상자원부 한중FTA: http://www.fta.go.kr/c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韩中贸易, 韩中FTA, 废除关税, 韩中FTA生效, 韩中FTA效果
	영문	Korea-China trade, Korea-China FTA, Immediate elimination, The Korea -China FTA came into effect,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An analysis of the Korea-China FTA effect on the change of Korea-China trade : Focusing on the electronics industry

Lee, Jong-Chan / Youn, Gwan-Jin / Chae, Sang-Soo

In this study, after the Korea-China FTA came into force, the effect of the Korea-China FTA was analyzed through changes in the Korea-China trade, changes in trends and regression analysis. It analyzed through the industrial field that it is electronic equipment and parts of HS Code 85 which contains a considerable number of items for immediate elimination of tariffs. As a result of the trend analysis, it was found that, except for the memory of HS Code 854232 among the items of immediate elimination of the Korea-China FTA, all the export trends of China declined after the Korea-China FTA came into force. And items of HS Code 854233 (Amplifier) and 854239 (Others) showed that the export trends declined and the income turned to an increasing trend. But empirical analysis throug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HS Code 854233 (Amplifier) has a negative impact on China's expo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hange in the trend of Korean and Chinese trade turned into a downward trend. Meanwhile, after the FTA came into effect, the items for immediate and immediate tariff eliminatio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ere able to obtain conflicting results that are displayed as an increasing effect on Korea / China trade. We were able to obtain a conclusion that variables other than tariffs offset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rade obtained by the elimination of tariff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종찬 / 李鐘燦 / Lee, Jong-Chan	채상수 / 蔡相秀 / Chae, Sang-Soo
		윤관진 / 尹官珍 / Youn, Gwan-Jin	
	소 속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경제통계학부	
	Em@il	ljc0306@korea.ac.kr	ssoochae@korea.ac.kr
		s2power09s2@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28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